

사이버윤리 준수인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내·외적요인*

김상현** · 박현선***

〈 목 차 〉

I. 서 론	4.2 측정모형 검증
II. 이론적 배경	4.3 구조모형 검증
2.1 사이버윤리	V. 결 론
2.2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	5.1 연구요약 및 시사점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3.1 연구모형	참고문헌
3.2 가설설정	<Abstract>
IV. 연구방법 및 분석	
4.1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I. 서 론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이버공간이라는 현실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제공한다. 사이버공간은 현실보다 더 쉽고 빠르게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등의 순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개방성, 참여성,

공유성, 저항성, 익명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가지고 개인의 삶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추병완, 2003).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인구의 79.4%인 38,120천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부터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78.8%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5.8%는 ‘일상생활

* 이 논문(저서)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sh@knu.ac.kr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sunny09@knu.ac.kr

에서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쉽게 생성되고 확산된다(62.6%)', '일탈행동과 모방범죄 등이 증가한다(64.6%)'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 사이버공간의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로서 인터넷 및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즉, 익명성, 개방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의 일탈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남용이나 악용, 저작권침해, 사이버폭력, 음란물유포, 해킹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1)의 '2011년 인터넷 윤리문화 실태조사'에서도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20% 이상이 악성댓글(악플)을 작성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54.4%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계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57.7%가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출처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의 게시물을 주로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67.0%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허락 없이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에 대한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스크

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문화 수준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인 53.7%가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낮다고 응답해 인터넷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및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윤리적 태도 및 행동요인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Banerjee et al., 1998; Leonard et al., 2004; Peace et al., 2003).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므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시킴으로써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윤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사이버윤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명재진과 이한태, 2013). 구본희와 최무진(2006)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인터넷 활용력 등이 정보윤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문구와 박종현(2008)은 자아개념, 대인관계, 윤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기식(2007)은 인터넷매체와 내용뿐만 아니라 상황 및 문화적인 외적 요인 역시 사이버윤리 인식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내적특성 및 외부 환경에 관한 요인이 사이버윤리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이버윤리는 지금까지 경영학, 법학,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경영정보시스템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전자상거래에서의 기업 및 소비자 윤리, 정보보안윤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구본희와 최무진, 2006; 김경희와 김태웅, 2012; 박주연, 2013; 백승익 등, 2006; Al-Rafee and Cronan, 2005; Peace et al.,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명재진과 이한태(2013)와 이기식(2007)이 제안하는 사이버윤리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윤리 및 사이버윤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아강도가 인지와 행동간의 관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윤리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이버윤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 및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2.1 사이버윤리

2.1.1 사이버공간의 특성

사이버공간은 현실 공간 못지않게 삶의 일부 분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명재진과 이한태, 2013).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은 현실 공간에 비해 익명성, 수평적 개방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시공간의 무제약성으로 인한 비동시성 등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현실 공간과는 다른 윤리적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익명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실명이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이 낮아질 수 있어 악의적인 댓글이나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유진호, 2012; 안은정과 이제홍, 2013).

둘째, 수평적 개방성은 사이버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므로 동등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현실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공

간에서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책임부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추병완, 2012).

셋째, 의사소통의 쌍방향성은 사이버공간이 불특정 다수 간에 쌍방향으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정보와 콘텐츠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반응을 신속히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안은정과 이제홍, 2013). 하지만, 제3자의 관여 없이 정보를 마음대로 생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유진호, 2012). 또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대량화되고 가속화되면서 걸리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안은정과 이제홍, 2013; 추병완, 2012).

이처럼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간단하고 빠른 정보의 수집, 표현의 자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부정적인 문제점들도 함께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법이나 기술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법적 대응이나 기술적 대응은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윤리적 대응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보다도 더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2.1.2 사이버윤리의 개념

‘사이버윤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윤리적 의식을 다루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추병완, 2001; 명재진과 이한태, 2013). 사이버윤리(Cyber Ethics)란 정보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기준을 나타낸다(추병완, 2001). 사이버윤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 컴퓨터가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컴퓨터윤리(Computer Ethics)’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윤리(Information Ethics)’, ‘정보기술윤리(Information Technology Ethics)’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윤리(Internet Ethics)’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자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공간에서 비롯된 윤리문제와 연관된 행동규범을 설명하기 위해 ‘사이버윤리’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유진호, 2012).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윤리’, ‘정보윤리’ 라는 용어가 ‘사이버윤리’

와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규범과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의 측면에서 추병완(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윤리’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Mason(1986)에 따르면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에 따라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하므로 ‘사생활 침해 문제(privacy)’, ‘정확성 문제(accuracy)’, ‘재산권 문제(property)’, 그리고 ‘접근성 문제(accessibility)’ 이라는 4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먼저 ‘사생활 침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저장, 보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환경 및 보호 장치 하에서 자신과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한다. ‘정확성’은 누가 수집되고 처리된 정보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책임이 있고 정보의 오류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한다. ‘재산권’은 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자원들에 접근해야 하는지, 정보 교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접근성’은 정보를 얻거나 접근하기 위한 권리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환경 및 보호 장치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한다. 이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정보가 유포되어 부정확한 정보가 떠돌아다닐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디지털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가 쉬워 타인의 재산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는 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이기식, 2007, 2011).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행동규범들이라 할 수 있다.

2.2 사이버윤리에 관한 선행연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및 상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학, 법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윤리와 관련하여 수행된 국내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명재진과 이한태(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윤리는 전공 분야에 따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이버윤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과거 경영학분야의 사이버윤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업 및 소비자의 윤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버윤리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백승익 등(2007)은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과 그에 따른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사이버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 미국, 인도의 각 국가별 인터넷 보급 환경 여부에 따라서 사이버윤리 지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문화와 윤리적인 시스템 간의 오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완성되어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치, 사회, 상업적인 측면에서 정보 및 사이버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윤리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이기식(2007)의 연구에서는 사이버윤리의 선행변수를 매체, 내용, 상황, 문화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들의 윤리성 회복을 통한 해결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며 사이버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분석이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이버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나 개념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개인의 윤리의식에 초점을 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이에 관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Banerjee et al.(1998)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적 특성이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해 윤리/비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Leonard et al.(2004)은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TPB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행동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개인의 주관적 신념, 자아강도, 도덕적 판단 등의 요인

들이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정보기술과 관련해서 윤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Leonard and Cronan(2005)은 정보시스템의 잘못된 사용과 비윤리적이고 범죄적 행동이 비즈니스 및 사회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동유형,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제재, 개인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연구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최종 사용자 컴퓨팅 모델을 제안한 Kreie and Cronan(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사회, 법, 비즈니스, 개인 가치, 도덕적 의무감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Lin and Ding(2003)은 TRA와 TPB를 기반으로 윤리/비윤리적 의사결정에 개인 가치와 윤리적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업불안정성(Job Insecurity)과 통제위치(Locus of Control)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함을 설명하였다.

개인의 윤리의식에 관한 국내연구의 경우, 구분희와 최무진(2006)은 개인의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자기표현성과 같은 자아의 특성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책임감을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보윤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효정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용자 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이들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는 요인이 자아효능감을 확인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현실과 가상을 혼돈하게 할 수 있는 불건전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공간의 윤리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문구와 박종현(2008)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매체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자아개념, 대인관계 및 인터넷 윤리에 대한 지식이 인터넷 윤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 차원의 윤리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터넷 윤리에 대한 바른 인지와 이해가 인터넷 윤리의 기반이 됨을 주장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중점을 둔다. Al-Rafee and Cronan(2006)은 TRA, TRB, 의사결정이론(Decision Making Theory)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침해는 관련 기업에 많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개인적 특성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Wu and Yang(2011)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대학생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Yoon(2011)은 TPB와 윤리 이론을 결합한 통합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윤리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도덕적 의무감, 공정성의 두 가지 변수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와 같은 TPB 변수들이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혜택, 위험 및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한정희와 장활식(2007)은 사이버공간에서 디지털 음악을 왜 무단으로 공유하고 불법적으로 유통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대신 불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음악을 획득하는 행동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개인의 윤리 및 도덕적 신념에 의해 좌우되므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정보기술 및 정보사용에 관한 윤리적 행동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소프트웨어, 음악 등의 불법적인 사용, 정보의 보안 및 침해, 정보시스템의 윤리적 사용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버윤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의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각각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사이버윤리에 관한 선

행연구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사이버윤리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구본희와 최무진 (2006)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인터넷 실제성, 인터넷 활용력 등이 인터넷 중독을 통해 정보윤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보윤리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검증
김문구와 박종현 (2008)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 수준에 자아개념, 대인관계, 윤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
김효정 등 (2007)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공간의 윤리 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검증
명재진과 이한태 (2013)	20020년~2012년 사이버윤리에 관해 수행된 국내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백승익 등 (2007)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윤리]의식 지수 측정을 위한 사이버 윤리 프레임워크 제안
이기식 (2007)	인터넷의 매체, 내용, 상황, 문화적 요인이 개인의 사이버윤리 인식과 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검증
한정희와 장활식 (2007)	사이버공간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도덕적 판단,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함
Al-Rafee and Cronan (2006)	TRA, TPB, 의사결정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지각된 중요성, 도덕적 판단, 인지적 신념, 감정적 신념, 주관적 규범 등이 영향 요인임을 검증
Banerjee et al. (1998)	TRA, TPB를 기반으로 조직 환경, 상황적 윤리, 개인의 주관적 신념 등이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
Leonard et al. (2004)	TRA, TPB, 도덕성 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행동에 태도, 주관적 신념, 자아강도, 도덕적 판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검증
Leonard and Cronan (2005)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윤리적 행동에 대한 태도에 환경적 요인, 도덕적 의무, 인식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검증
Lin and Ding (2003)	TRA, TPB를 기반으로 정보윤리에 대한 태도, 개인가치, 지각된 행동통제가 윤리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하고 직업불안정성과 통제위치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함을 확인
Wu and Yang (2011)	대만과 중국 대학생들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윤리 및 도덕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
Yoon (2011)	도덕적 의무, 공정성,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윤리적 행동의 영향요인임을 검증하고 TPB와 윤리이론을 결합한 통합 모델을 제안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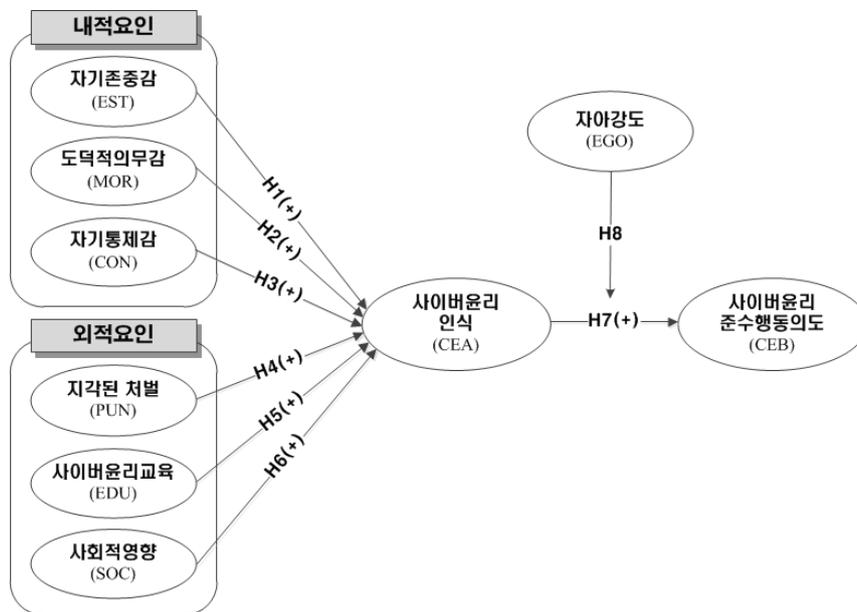
3.1 연구모형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이버공간의 문제점과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윤리의식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사이버윤리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TRA와 TPB를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의 영향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안한다. 이들 이

론은 개인의 윤리적인 행위 및 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틀로 적용되어 그 유용성이 확인된바 있다(Al-Rafee and Cronan, 2005; Banerjee et al., 1998; Leonard et al., 2004; Lin and Ding, 2003; Peace et al., 2003).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연구를 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사이버윤리인식 및 준수행동의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사이버윤리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존중감, 자기통제감, 도덕적의무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요인은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준수하거나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EST: Self-Esteem, MOB: Moral Obligation, SCO: Self-Control
 PUN: Perceived Punishment, CET: Cyber Ethics Education, SOC: Social Influence
 CEA: Cyber Ethics Awareness, CEC: Cyber Ethics Compliance Behavior Intention, EST: Ego Strength

<그림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개인의 의식은 윤리적 의식 수준 및 태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증명된 바 있다(구본희와 최무진, 2006; 김문구와 박종현, 2008; Al-Rafee and Cronan, 2006).

다음으로 법적 처벌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과 콘텐츠와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윤리 교육의 강화, 준거집단, 조직 및 단체들의 캠페인 활동 등의 영향이 사이버윤리에 대해 인식하고 의식 수준을 높이는 중요 방안이자 추진과제일 것으로 판단하여 지각된 처벌, 사이버윤리교육, 사회적 영향을 외적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윤리인식과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자아강도가 사이버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자발적인 의지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가설설정

3.2.1 내적요인

자기존중감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구본희와 최무진, 2006).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사이버공간에 중독되기 쉽다(Young, 1998). 또한 이러한 사이버중독은 사이버공간에서 지

켜야하는 윤리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건전한 행동이나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Mann and Sutton, 1998).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존중감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도덕적 원리를 바탕으로 행동하려는 윤리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구본희와 최무진, 2006). 따라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존중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비윤리적이고 불건전한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게 만든다.

도덕적 의무감은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판단하는 방법이나 인지하는 도덕적 책임 및 의무감의 정도를 의미한다(Al-Rafee and Cronan, 2005; Leonard and Cronan, 2005). 일반적으로 개인의 도덕성 발달 수준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Kohlberg, 1969).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개인은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대해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의 의지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nerjee et al., 1998; Kreie and Cronan, 1999; Kohlberg, 1969). 이런 점에서 도덕적 판단이나 의무감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태도를 예측하려는 윤리 연구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알려져 있다(Banerjee et al., 1998; Leonard and Cronan, 2005). Leonard and Cronan(2005)은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윤

리적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도덕적 의무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으며, Tan(2002)은 도덕적 판단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도덕적 의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더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기통제감은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 의지, 충동을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Logue, 1995; 구본희와 최무진, 2006).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지금 당장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될 장기적인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또한, 욕구 충족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단순한 것들을 선호하며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행위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충동조절의 장애가 나타나거나 쉽게 특정 대상에 중독되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Mischel et al., 1988). 구본희와 최무진(2006)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인터넷에 중독되기 쉽고 사이버공간에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이버윤리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의 내적요인으로 자기존중감, 도덕적 의무

감, 자기통제감의 세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과 사이버윤리인식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자기존중감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도덕적 의무감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기통제감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외적요인

지각된 처벌은 사이버공간에서 옳지 않거나 나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준, 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Straub, 1990; Peace et al., 2003).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등은 하나의 범죄로서 단속, 법적 제재 및 고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내포한다. 법적 처벌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은 사람들의 범죄 동기를 억제시키고 상황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Scholtz, 1997; Straub, 1990). 사람들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특정 행동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다고 인지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윤리적인 행동은 감소된다. 뿐만 아니라, 처벌의 강도도 높다고 판단될 때 더 윤리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박주연(2013)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할수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Peace et al.(2003)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태도에 처벌에 대한 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사이버윤리교육은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할 책임과 도덕적 규범, 정보윤리 등에 대한 교육, 안내, 훈련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완화시키고 미래에 더 발전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Hsu and Kuo, 2003; Kurland, 1995). 특히, 윤리교육은 특정 조건과 환경에서 효과가 있는 요소로서 범죄에 대한 윤리교육은 범죄 행위를 억제시키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 유발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rrington, 1997). 윤리교육은 도덕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기로서 윤리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박철주와 임명성(2012)의 연구에서도 보안인식에 대한 교육이 보안정책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개인이 사이버공간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이버윤리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영향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집단의 규범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할 책임과 도덕적 규범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l-rafee and Cronan, 2005; Peace et al., 2003). 사회적 영향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이나 생각까지도 포함한다. 사회적 영향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태도나 인식은 가족, 친

구, 동료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대중매체, 사회적 규범 등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Kreie and Cronan, 1999; 김경희와 김태웅, 2013). 즉,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집단 규범에 의해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규범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Kreie and Cronan(1999) 윤리/비윤리적 행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족, 동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윤리적 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김경희와 김태웅(2013)은 사이버공간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사회적 영향력이 태도와 행동의 선행요인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이버윤리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의 외적요인으로 지각된 처벌, 사이버윤리교육, 사회적 영향의 세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들과 사이버윤리인식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지각된 처벌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사이버윤리교육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사회적 영향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사용자행동과 자아강도

사이버윤리인식은 사이버공간에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는 사이버공간에서 윤리 및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사이버윤리를 실천하려는 행동의지의 정도를 의미한다(Mason, 1986). 정보시스템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기초가 된 TRA와 TPB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지 않을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이다(Ajzen, 1991; Fishbein and Ajzen, 1975).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도 태도는 개인의 윤리적인 행동 및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임이 확인된 바 있다(Banerjee et al., 1998; Chang, 1998). 즉, 윤리적인 판단이나 평가, 태도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선행변수이며, 정보윤리, 저작권보호, 사생활 침해 보호 등에 관한 연구에서 그 관계가 확인되었다(Banerjee et al., 1998; Lin and Ding, 2003).

자아강도는 주어진 환경에 기대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아기능의 세기로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외적 세계에 대해 반응하며 대처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힘의 정도를 의미한다(하영윤과 오영환, 1996). 즉, 개인이 자신의 내·외적 상태를 바탕으로 욕구 및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기대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유지해나가는 내적인 힘의 정도를 나타낸다(Trevino, 1986). 어떤 현실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의 정도는 ‘강하다’, ‘약하다’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크고 자아강도가 약한 사람들보다 충동을 더 잘 억누를 줄 알며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의 정

도가 높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이상배 등, 2004). 또한, 자아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일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Trevino, 1986). 따라서 자아강도는 개인이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Kohlberg, 1969; Leonard et al., 2004; Trevino, 1986). 또한 자아강도는 개인의 신념과 이를 실천하는 행동 사이에 조절변수로 사용된 바 있으며 신념 및 인식과 결합하여 행동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Banerjee et al., 1998; Trevino, 1986; 이상배 등, 2004). 이런 점에서 자아강도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정 행동에 대해 윤리/비윤리를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단하며 사이버윤리를 준수하려는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 사이버윤리인식은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자아강도는 사이버윤리인식과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대학생들의 사이버윤리 준수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조사 대상 선정은 대구, 경북 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각 잠재변수의 측정을 위한 항목은 1차적으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설문항목은 각 항목의 정확성과 어법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정보 및 마케팅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각 관측변수에 대한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

항목에 대한 정확성과 정교화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0대의 대학(원)생 및 직장인을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설문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최종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Mason(1986)이 제안한 ‘사생활 침해’, ‘정확성’, ‘재산권’, ‘접근성’을 바탕으로 사이버윤리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이버윤리인식과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에 대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각 변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연구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연구
자기존중감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정도	Rosenberg(1965) Young(1998)
도덕적의무감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기반으로 책임 및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	Banerjee et al.(1998) Al-Rafee and Cronan(2005)
자기통제감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 의지, 행동을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정도	Logue(1995) Peace et al.(2003)
지각된 처벌	사이버공간에서 옳지 않거나 나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준, 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	Straub(1990) Peace et al.(2003)
사이버윤리교육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할 책임과 도덕적 규범, 정보윤리 등에 대한 교육, 안내, 훈련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Harrington(1997) Hsu and Kuo(2003)
사회적영향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할 책임과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나 집단의 규범을 통해 인지하는 정도	Al-Rafee and Cronan(2005) Peace et al.(2003)
자아강도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자신의 내외적 상태를 바탕으로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기대되는 요구와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가려는 정도	Banerjee et al.(1998) Leonard et al.(2004)
사이버윤리인식	사이버공간에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Chang(1998) Mason(1986)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사이버공간에서 옳고, 좋거나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려는 행동의지의 정도	Chang(1998) Mason(1986)

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연구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이메일, 직접 방문, 우편 및 현장조사를 통한 다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3주간 이루어졌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의 모든 항목들은 (1)강한 부정 에서부터 (7)강한 긍정에 걸친 7점 리커트(seven-point Likert scale)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총1,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213부(회수율21.3%)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하지만 이 중 17부는 설문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수거되어 이를 제외한 196부의 사용 가능한 설문지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최종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자료 특성 및 응답자들의 인터넷 이용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55.1%(108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4.9%(88명)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1시간~2시간 미만이 40.3%(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2~3시간미만이 32.7%(64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한 용도를 살펴보면, 자료 및 정보 획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36.7%(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감상, 게임 등의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34.2%(67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음이 13.3%(2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음이 60.7%(119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나 자료에 접

근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음이 51.5%(101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 인구통계학 및 인터넷 이용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08	55.1
	여성	88	44.9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1시간 미만	26	13.3
	1-2시간 미만	79	40.3
	2-3시간 미만	64	32.7
	3시간 이상	27	13.8
주된 인터넷 사용목적	자료 및 정보획득	72	36.7
	여가활동(음악 감상, 게임 등)	67	34.2
	커뮤니케이션(이 메일, 메신저이용)	22	11.2
	쇼핑(구매 /판매)	20	10.2
	교육 및 학습	15	7.7
허위사실 게시경험	있음	26	13.3
	없음	170	86.7
타인정보 무단사용 경험	있음	119	60.7
	없음	77	39.3
부적절한 접근경험	있음	101	51.5
	없음	95	48.5
합계		196	100

4.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총 196부의 응답을 대상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접근 방법인 부분최소자승(PLS, Partial Least Square)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도구로 SmartPLS2.0을 사용하였다. PLS를 사용한 주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탐색적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PLS는 표본에 대한

<표 4> 측정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AVE	구성신뢰도	Cronbach's α
자기존중감	0.723	0.887	0.812
도덕적의무감	0.611	0.824	0.682
자기통제감	0.642	0.842	0.721
지각된처벌	0.784	0.916	0.862
사이버윤리교육	0.816	0.930	0.889
사회적영향	0.673	0.860	0.766
자아강도	0.894	0.962	0.941
사이버윤리인식	0.734	0.917	0.878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0.563	0.865	0.812

편리함을 제공 받을 수 있다(Chin et al., 2003). 또한 PLS는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와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분석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측정모형의 신뢰성(Reliabilit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등의 검증은 몇 가지 요소의 검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Nunnally, 1978). 수렴타당성은 각 측정항목과 연구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이며, 판별타당성은 각 측정항목이 이론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잠재변수 외의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관계가 약한지에 대한 판단이다(Gefen and Straub, 2005). 수렴타당성의 검증은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구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및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

<표 5>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자기존중감	5.34	0.91	0.85								
2. 도덕적의무감	5.02	1.03	0.04	0.78							
3. 자기통제감	6.12	0.89	0.33	0.35	0.80						
4. 지각된처벌	5.09	1.06	0.43	0.30	0.49	0.89					
5. 사이버윤리교육	4.96	0.94	0.51	0.17	0.49	0.54	0.90				
6. 사회적영향	5.19	1.07	0.47	0.03	0.43	0.41	0.51	0.82			
7. 자아강도	5.47	1.12	0.35	0.17	0.44	0.42	0.57	0.56	0.95		
8. 사이버윤리인식	5.81	0.95	0.47	0.33	0.33	0.24	0.36	0.39	0.22	0.86	
9.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6.15	1.08	0.16	0.24	0.35	0.28	0.30	0.19	0.18	0.47	0.75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을 사용한다. 먼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0.682에서 0.941로 나타났다. Hair et al.(1998) 은 0.6에서 0.7을 넘어서는 경우도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구성개념의 Cronbach's α 값은 임계치를 상회하

<표 6> 측정항목의 교차 요인값

항목	요인								
	자기 존중감	도덕적 의무감	자기 통제감	지각된 처벌	사이버 윤리 교육	사회적 영향	자아 강도	사이버 윤리 인식	사이버 윤리 준수 행동
est1	0.837	0.394	0.379	0.122	0.204	0.355	0.476	0.572	0.232
est2	0.870	0.393	0.349	0.146	0.095	0.249	0.304	0.305	0.268
est3	0.844	0.274	0.230	0.278	0.255	0.362	0.250	0.319	0.356
mor1	0.122	0.747	0.194	0.307	0.338	0.434	0.235	0.296	0.431
mor2	0.192	0.869	0.316	0.285	0.265	0.476	0.240	0.393	0.425
mor3	0.281	0.722	0.519	0.232	0.137	0.414	0.371	0.315	0.319
con1	0.285	0.349	0.699	0.190	-0.002	0.405	0.478	0.428	0.332
con2	0.371	0.457	0.871	0.054	-0.024	0.257	0.487	0.460	0.330
con3	0.377	0.256	0.823	0.183	0.115	0.405	0.344	0.330	0.463
pun1	0.307	0.456	0.415	0.815	0.154	0.433	0.170	0.474	0.427
pun2	0.302	0.434	0.421	0.924	0.135	0.410	0.476	0.379	0.435
pun3	0.234	0.289	0.375	0.913	0.173	0.429	0.418	0.229	0.507
edu1	-0.003	-0.037	0.057	0.319	0.883	0.296	0.129	0.166	0.305
edu2	-0.050	-0.041	0.020	0.131	0.940	0.321	0.165	0.166	0.263
edu3	-0.026	-0.031	0.039	0.174	0.886	0.338	0.171	0.108	0.233
soc1	0.234	0.355	0.350	0.214	0.208	0.804	0.199	0.276	0.441
soc2	0.236	0.391	0.248	0.187	0.194	0.835	0.175	0.145	0.418
soc3	0.166	0.242	0.181	0.121	0.058	0.822	0.205	0.470	0.347
ego1	0.254	0.366	0.350	0.035	-0.117	0.054	0.967	0.352	0.146
ego2	0.194	0.302	0.296	-0.007	0.034	0.161	0.959	0.297	0.239
ego3	0.067	0.332	0.354	-0.065	0.036	0.147	0.910	0.250	0.233
awa1	0.325	0.224	0.347	0.046	-0.101	0.118	0.200	0.830	0.321
awa2	0.410	0.276	0.396	0.104	0.025	0.336	0.327	0.911	0.390
awa3	0.175	0.313	0.362	0.230	-0.044	0.286	0.286	0.890	0.285
awa4	-0.072	0.114	0.141	0.334	0.304	0.249	0.170	0.789	0.257
int1	0.029	0.150	0.166	0.309	0.155	0.336	0.158	0.315	0.803
int2	0.007	0.165	0.183	0.218	0.190	0.357	0.176	0.252	0.680
int3	0.095	0.216	0.230	0.271	0.399	0.455	0.284	0.358	0.721
int4	0.074	0.229	0.346	0.285	0.287	0.398	0.282	0.299	0.759
int5	0.144	0.333	0.452	0.312	0.203	0.396	0.237	0.374	0.783

므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각 구성개념(또는 잠재변수)의 AVE 값(0.563~0.816)은 임계치인 0.5(Fornell and Larcker, 1981)보다 크게 나왔으며, 구성신뢰도 값(0.842~0.930) 역시 임계치인 0.7(Carmines and Zeller, 1979)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측정도구는 수렴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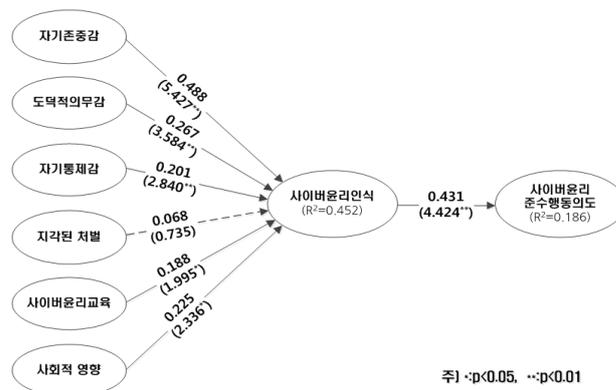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Fornell and Larcker(1981)이 제안한 AVE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통해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해당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관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AVE의 제곱근 값이 인접하고 있는 종과 횡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항목의 요인값이 타 구성개념의 측정항목 요인값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별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4.3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후, 본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총 8개의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설1~가설7의 7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구성개념들 간의 경로계수를 PLS를 통해 구하고 PLS의 부스트랩 리샘플링 방법(bootstrap resampling method)으로 각 경로계수의 t-값을 구하여 각 가설에 대한 통계적 지지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적요인인 자기존중감, 도덕적의무감, 자기통제감은 사이버윤리인식에 각각 경로계수 0.488, 0.267, 0.201, t-값 5.427, 3.584, 2.84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지지되었다. 따라서 내적요인인 3개 변수와 사이버윤리인식 간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가설1, 가설2, 가설3은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외적요인의 3개 변수 중에서 사이버윤리교육, 사회적 영향은 사이버윤리인식에 각각 경로계수 0.188, 0.225, t-값 1.995, 2.33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지지되었다. 따라서 가설5, 가설6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지각된 처벌과 사이



<그림 2> 경로계수 분석결과

<표 7> 가설검증 결과요약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t-값	차이	F-값	결과
가설1	자기존중감 → 사이버윤리인식	0.488	5.427**	-	-	채택
가설2	도덕적의무감 → 사이버윤리인식	0.267	3.584**	-	-	채택
가설3	자기통제감 → 사이버윤리인식	0.201	2.840**	-	-	채택
가설4	지각된 처벌 → 사이버윤리인식	0.068	0.735	-	-	기각
가설5	사이버윤리교육 → 사이버윤리인식	0.188	1.995*	-	-	채택
가설6	사회적 영향 → 사이버윤리인식	0.225	2.336*	-	-	채택
가설7	사이버윤리인식 → 사이버윤리준수행동의도	0.431	4.424**	-	-	채택
가설8	사이버윤리인식 → 사이버윤리준수행동의도 ↑ 자아강도	-	-	0.025	7.240**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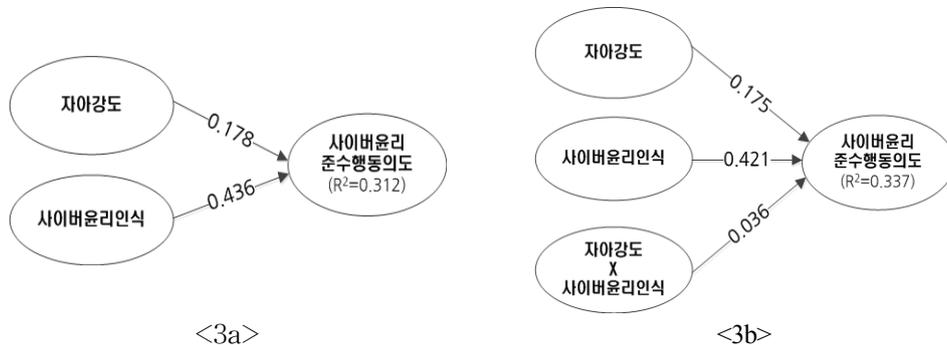
주) *: p<0.05, **: p<0.01

버윤리인식 간의 직접적 관계는 지지되지 않아 가설4는 기각되었다.

셋째, 사이버윤리인식은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에 경로계수 0.431, t-값 4.424로 유의수준 0.01에서 지지되어 가설7은 채택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윤리인식은 R²값이 0.452,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는 R²값이 0.186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윤리인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45.2%는 자기존중감, 도덕적 의무감, 자기통제감, 사이버윤리교육, 사회적 영향의 5가지 변수의 변동으로 설명

되고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의 18.6%는 사이버윤리인식의 변동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접효과에 대한 분석 후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8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의 조절효과분석은 Carte and Russell(2003)의 연구에서 제안한 조절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조절효과 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절변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 간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선행변



<그림 3> 조절효과 분석결과

수로 했을 때의 R^2 값과 여기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를 선행변수로 추가했을 때의 증가된 R^2 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가설8(사이버윤리인식→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사이에 자아강도의 조절효과)을 검증하기 위해 사이버윤리인식 외에 자아강도를 선행변수로 했을 때의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에 대한 R_m^2 값 0.312를 구하고(그림3a), 사이버윤리인식과 자아강도를 곱한 측정항목(product scale)을 선행변수로 추가하였을 때의 R_a^2 값 0.337을 구했다(그림3b). Carte and Russell(2003)에 따르면 R_m^2 값과 R_a^2 값의 차이인 ΔR^2 값이 충분히 크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경우, 선행변수의 수($df_m=2$, $df_a=3$)와 연구에 사용한 총 표본의 수($N=196$)를 고려하여 Carte and Russell(2003)이 제안한 다음의 수식에 의해 F-값을 구함으로써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F(df_m - df_a, N - df_m - 1) = \frac{\Delta R^2 / (df_m - df_a)}{(1 - R_m^2) / (N - df_m - 1)}$$

본 연구에서는 F-값(7.240)을 구한 결과 가설 8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자아강도가 사이버윤리인식과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다음의 <표 7>은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V. 결론

4.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준수 필요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외적요인들과 자발적으로 사이버윤리를 준수하려는 행동에 관한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아강도의 수준이 윤리인식과 준수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 이용에 있어 보다 영향력 있는 사용자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96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내적요인으로 제안한 3가지 변수 중 자기존중감, 도덕적 의무감, 자기통제감은 대학생들의 사이버윤리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감정, 의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고 더 관심을 가지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존중감, 도덕적 의무감, 자기통제감은 인터넷 중독, 저작권침해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예측하는 선행변수이자 정보윤리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자아특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 비윤리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Leonard and Cronan, 2005; Young, 1998; 구본희와 최무진, 2006).

둘째, 개인의 외적요인 중 사이버윤리교육과 사회적 영향은 대학생들의 사이버윤리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 책임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안내가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시키고 사이버윤리 문제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과 대중매체가 사이버공간의 윤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개인도 이에 영향을 받아 사이버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적절한 교육과 안내, 준거 집단 및 대중매체를 통한 영향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고 윤리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su and Kuo, 2003; Kreie and Cronan, 1999; 박철주와 임명성, 2012). 하지만 지각된 처벌은 사이버윤리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이버윤리를 준수하고 관련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적 의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Bagchi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법적 규제 및 처벌이 불법복제, 저작권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이버윤리인식은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사생활 침해,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불법적인 인터넷 사용, 저작권침해 등을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지하고 사이버윤리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이는 실제로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윤리적 판단, 평가, 태도 및 인식이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 및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Banerjee et al., 1998; Lin and Ding, 2003).

넷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제안한 자아강도는 사이버윤리인식과 준수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아강도가 강한 사람은 욕구에 대한 인내의 정도가 높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주어진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윤리 문제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을 취함으로써 사이버윤리를 준수하는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지를 판단하는데 자아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olberg, 1969; Leonard et al., 2004; Tervino, 1986).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경영학 분야에서 윤리 문제를 살펴보는 기존 연구는 영화, SW,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정보윤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와 이기식(2007, 2011)과 Mason(1986)이 제안한 사생활 침해, 허위정보 유포, 부적절한 인터넷 접근, 타인정보의 무단 사용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윤리 개념에 초점을 두고 사이버윤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외적요인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개인의 인격을 대표하는 개념인 자아강도를 인식과 행동 간의 조절변수로 제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자아강도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립변수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이들 작용에 더 효율적인 자아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의 적응적 기능 수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Fine, 1979).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윤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정도에 자아의 강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용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공간 이용자들의 사이버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현실과 사이버공간을 막론하고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

다고 인식시켜주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와 관련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캠페인이나 온라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윤리 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나서 사이버윤리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정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사이버윤리 교육은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성 함양 및 가치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저연령층에서부터 사이버윤리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관한 법적 규제나 처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28.0%가 인터넷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등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향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윤리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같은 엄격한 규제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발생 시에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의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이버윤리 의식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은 사생활 보호, 정확한 정보 유포, 지적재산권 보호, 적절한 정보 접근성 등으로 세분화되며 주로 시나리오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사이버윤리 의식 정도를 평가하는 각각의 요인을 종속변수로 제안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신상정보와 사생활 정보, 사용자제작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쇼핑물, 콘텐츠 공유 사이트 등에 따라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사이버윤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내·외적요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사용 유형 및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이 바람직한 사이버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구분희, 최무진,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아 특성

및 인터넷 인지 특성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15권, 제3호, 2006, pp. 233-252.

김문구, 박종현, “국내 성인의 인터넷 윤리수준 영향요인과 인터넷 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3호, 2008, pp. 65-91.

김경희, 김태웅,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호, 2013, pp. 63-71.

김효정, 유상진, 구본희, “개인 특성 및 인터넷 활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48권, 2007, pp. 101-124.

명재진, 이한태, “사이버윤리 연구동향 분석과 정보인권 측면에서의 평가,” 정보화정책, 제20권, 제1호, 2013, pp. 3-21.

박주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보호에 관한 연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013, pp. 145-151.

박철주, 임명성, “보안 대책이 지속적 보안 정책 준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2012, pp. 23-35.

백승익, 조남재, 이인, 강진우, 김봉준, “사이버 윤리지표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 미국, 인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4권, 제1호, 2007, pp. 85-101.

안은정, 이제홍, “인터넷 윤리의식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4권, 제2호, 2013, pp. 69-87.

유진호, “인터넷 윤리의 개요 및 국내 현황,” 정보

- 과학회지, 제30권, 제10호, 2012, pp. 15-20.
- 이기식,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CyberEthics)의 영향요인분석: 매체-내용-상황-문화 관점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회보, 제11권, 제3호, 2007, pp. 49-76.
- 이기식,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관한 연구: 영향요인도출,”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6호, 2011, pp. 57-70.
- 이상배, 김용겸, 김인호, “정보시스템 요원의 정보윤리 실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 관계연구,” 경영학연구, 제33권, 제2호, 2004, pp. 375-422.
- 추병완, 정보윤리교육론, 서울:울력, 2001.
- 추병완, “사이버 공간의 도덕과 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교육과교육연구, 제16권, 2003, pp. 306-320.
- 추병완,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과 인터넷윤리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제87권, 2012, pp. 119-141.
- 하영윤, 오영환, “대학생의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8권, 1996, pp.99-119.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2011.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2.
- 한정희, 장활식,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1호, 2007, pp. 135-158.
- Al-Rafee, S. and Cronan, T.P., “Digital Piracy: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 Towar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63, No.3, 2006, pp.237-259.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1991, pp.179-211.
- Bagchi, K., Kirs, P. and Cerveny, R., “Global Software Piracy: Can Economic Factors Alone Explain the Trend?,”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9, No.6, 2006, pp.70-76.
- Banerjee, D., Cronan, T.P. and Jones, T.W., “Modeling IT Ethics: A Study in Situational Ethics,” *MIS Quarterly*, Vol.22, No.1, 1998, pp.31-60.
- Carmines, E.G. and Zeller, R.A.,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79.
- Carte, T.A. and C. J. Russell, C.J., “In Pursuit of Moderation: Nine Common Errors and Their Solutions,” *MIS Quarterly*, Vol. 27, No.3, 2003, pp.479-501.
- Chang, M.K., “Predicting Unethical Behavior: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 Vol.17, No.16, 1998, pp.1825-1834.
- Chin, W., Marcolin, B. and Newsted, P.R., “A Partial Least Squares Latent Variable Modeling Approach for Measuring Interaction Effects: Results from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and a Electronic-Mail Emotion/Adoption

- Study,” *Information System Research*, Vol.14, No.2, 2003, pp.189-217.
- Fishbein, M. and Ajzen, L.,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 Fornell, C. and Larcker, D.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1981, pp.39-50.
- Gefen, D. and Straub, D., “A Practical Guide to Factorial Validity Using PLS Graph: Tutorial and Annotated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6, No.5, 2005, pp.91-109.
-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Hair, J.F., Anderson, R.E., Tatham, R. L. and Black, W. C.,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Harrington, S.J., “A Test of a Person-Issue Contingent Model of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6, No.4, 1997, pp.363-375.
- Hsu, M.H. and Kue, F.Y., “An Investigation of Volitional Control in Information Ethics,”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22, No.1, 2003, pp.53-62.
- Kurland, N.B., “Ethical Intentions and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5, No. 4, 1995, pp. 297-313.
- Kolberg, L.,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Rand McNally, Chicago, IL, 1969.
- Kreie, J. and Cronan, P., “Copyright, Piracy, Privacy and Security Issues: Acceptable or Unacceptable Action for End Users?,” *Journal of End User Computing*, Vol.11, No.2, 1999, pp.13-21.
- Leonard, L.N.K. and Cronan, T.P., “Attitude toward Ethical Behavior in Computer Use: A Shifting Model,”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Vol.105, No.9, 2005, pp.1150-1171.
- Leonard, L.N.K., Cronan, T.P. and Kreie, J., “What Influences IT Ethical Behaviour Intentions-Planned Behavior, Reasoned Action, Perceived Importance,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 Management*, Vol.42, No.1, 2004, pp.143-158.
- Logue,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1995.
- Mann, D. and Sutton, M., “Net Crime: More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iev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8, No.2, 1998, pp.201-229.

- Mason, R.O., "Four Eth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MIS Quarterly*, Vol.10, No.1, 1986, pp.5-12.
- Mischel, W., Schoda, Y. and Peake, P.K.,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No.4, 1988, pp.687-696.
- Nunnally, N.C., *Psychometric Theory*, NY: McGraw-Hill, 1978.
- Peace, A.G., Galletta, D.F. and Thong, J.Y.L.,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0, No.1, 2003, pp.153-177.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Scholtz, J.T., "Enforcement Policy and Corporate Misconduct: The Changing Perspective of Deterrence Theor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Vol.60, No.3, 1997, pp.253-268.
- Straub, D.W., "Effective IS Security: An Empirical Stud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 No.3, 1990, pp.255-276.
- Trevino, L.K.,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A Person-Situation Interactionis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1986, pp.601-617.
- Wu, W.P. and Yang, H.L., "A Comparative Study of College Students' Ethical Perception concerning Internet Piracy," *Quality & Quantity*, Vol.47, No.1, 2013, pp.111-120.
- Yoon, C.,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thics Theory in Digital Piracy: An Integrated Model,"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00, No.3, 2011, pp.405-417.
- Young, K.S.,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Y: John Wiley & Sons Inc, 1998.

김상현(Kim, Sanghyun)



미국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서 호텔경영 및 경영학석사와 MBA 학위를 받았으며, University of Mississippi, Oxford에서 경영정보학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Information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DATA BASE for Advances in Information System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등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RFID, OSS, IT Adoption,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다.

박현선(Park, Hyun-Sun)



경북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e-비즈니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있다.

<부록> 설문항목

변수	측정항목
자기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 •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 •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임.
도덕적의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적 의무감을 느낌. •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일임. •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학생으로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 느낌.
자기통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있음. •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임.
지각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간에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은 매우 엄격함. • 사이버공간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릴 경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 사이버공간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큼.
사이버윤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윤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사이버윤리 실천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가 장려되고 있음. • 사이버윤리 이슈에 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사회적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윤리를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음 • 대중매체를 보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느낌.
자아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능력에 따라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음 •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라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음 •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행동 제어에 따라 사이버윤리를 실천할 수 있음
사이버윤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함 • 사이버공간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유익함 • 사이버공간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유용함 • 사이버공간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즐거움
사이버윤리 준수행동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임 • 사이버공간에서 내가 가진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정보를 올리지 않을 것임 •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 • 부적절한 접근 방식으로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 • 전반적으로 사이버윤리를 실천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Abstract>

Intrinsic and Extrinsic Factors Impacting Individuals' Cyber Ethics Awareness and Behavior Intention

Kim, Sanghyun · Park, Hyunsun

As the Internet is widely used worldwide, Cyber world has become a part of daily life. On the other hand, the adverse effects of Internet, such as abusive comments, illegal harmful contents, rumor diffusion, infringement on a right have emerged with the increase. Researchers recognized the important of cyber ethics as an effective means of coping with the adverse effects on Internet. But,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related to cyber ethics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multidimensional motivation factors that cyber ethics awareness and compliance behavior Intention. For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Internet users to compliance cyber ethics. Using university students as a sample, one hundred and ninety six are collected for furth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Moral Obligation, self-control, cyber ethics education and Social Influence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cyber ethics awareness, while punishmen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Second, cyber ethics awareness have a positive effect on cyber ethics compliance behavior Inten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strength is also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 behavior model to understand the compliance of cyber ethics with internet user in Korea.

Keywords: Cyber Ethics Awareness, Cyber Ethics Compliance Behavior Intention, Intrinsic Factor, Extrinsic Factor, Ego Strength

* 이 논문은 2013년 12월 2일 접수하여 2차 수정을 거쳐 2014년 3월 23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